

## 『潮騷』의 사상 소고(小考)

-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

張 晋 洙\*

## I. 서 론

작자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이하 미시마로 칭한다)<sup>1)</sup>는 『潮騷』작품에 일본의 신도사상과 유럽에서 일어난 복고주의 사상을 매개로 하여 그리스 기독교의 원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潮騷』는 다프니스(Daphnis)와 크로에(Chloe)<sup>2)</sup> 작품의 모사(模寫)라고 한다. 이 작품 속에 유럽에서 나타난 복고주의는 다프니스와 크로에 작품에서 보인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난 종교 형태로 기독교의 원죄에 대한 선악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의 원죄는 인간의 심정(心情)은 본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원죄가 발견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한 예로 야스오(安夫)와 신지(新治)가 가미카제(神風)호를 타고 선원 실습을 하는 도중 불성실한 야스오에게 수부장(水夫長)은 야단을 쳤는데, 그때 야스오는 참다못해 호통을 친 수부장에게 그는 앞으로 선주의 딸인 하쓰에(初江)와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배는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간악한 야심을 드러내며 수부장을 화나게 만들었다. 야스오는 주인공 신지에게는 네거티브(Negative)적인 인물로서 지금까지 신지와 하쓰에에게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욕심 많고 증오에 가득찬 악한 마음을 가진 인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교수

- 1) 1925년(大正14년) 東京市 四谷區 永住町에서 아버지 平岡粹 어머니 委文重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본명은 公威이다. 동경대학 법학부에서 수학하였고, 大藏省 관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문학의 길을 걸은 작가이다. 『金閣寺』, 『假面の告白』, 『潮騷』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기고, 1970년 할복 자결을 하였다.
- 2) 다프니스와 크로에는 2세기경의 그리스 작가인 롱고스 작품으로 추정되며 목가적인 소설이다. 내용은 그리스 어느 섬에 버려진 남녀 아이가 있었는데 이웃하여 양을 기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려서 서로 사랑을 하였으나 연애란 것조차 알지 못하고 헤어졌다. 몇 년 후에 다프니스는 장원주의 자식으로 크로에는 대상인의 딸이 되어 경사스러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고대소설이다.

물이다. 그러나 하쓰에 아버지인 데루기찌 영감은 야스오를 사위감으로 정하였다. 그 후 야스오는 무능력하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데루기찌 영감에게 알려져서 야스오와 하쓰에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반면 유능하고 선한 행동을 한 신지는 하쓰에와 신의 은총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선악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선악사상은 원죄로부터 나오고, 그 원죄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다. 선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은 선에 대립하는 개념이라고도 했다.

욕심은 원죄를 낳고 선과 악은 원죄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독교 사상으로 보고 이 『潮騷』 작품에서 나타나는 원죄의 선과 악을 탐구하려고 한다.

필자는 작자 미시마가 남미 대륙과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서양의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내용을 이 작품 속에 담으려고 한 점을 부각시켜서 연구하려고 하였다.

작품 『潮騷』는 三島由紀夫全集 第9卷, 新潮社, 1973年度版을 참조하였고, 인용문 끝에( ) 안의 숫자는 그 인용문이 있는 작품 『潮騷』의 페이지 수를 표시하였다.

## II. 본 론

### 1. 기독교 사상 배경

일본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프란시스코 사비엘이 가고시마(鹿兒島)에 입국한 후 1549년 예수회를 창설한 때였다. 처음에는 영주들이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신자가 늘어났다. 오다노부나가(小田信長),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이에야스(徳川家康)도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해 때문이라기보다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던 불교 세력과 대항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스페인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헛소문으로 도요토미히데요시는 1597년에 기독교인 일본인과 유럽인 26명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그 후에 박해가 몹시 심하여 교력이 약해졌으나 메이지(明治)정부 이후 기독교 금교가 해제되고 서구 문화의 중심을 이루어 온 기독교는 사회, 문학, 도덕, 사상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sup>3)</sup>

여기서 고대 그리스 종교사를 잠시 살펴보자.

3) 林鍾碩, 엔도슈사쿠의 『침묵』에 있어서의 기독교, 韓國日本學會, 2002, p.356.

독일의 문헌 학자 로데(Rohde)는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에도 영혼 숭배의 의례가 존재했다. 이는 호머 및 헤시오드에 내포된 가장 오래된 서사시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즉 호머의 시편은 그에 의해 대표되는 시대의 새로운 창작이며, 호머 이후에 나타난 영혼 숭배는 호머에 의해 중단된 원시적 신앙의 계속이라는 것이다. …… 대체로 신도의 원시적 단계에서 엿볼 수 있는 밝고 천진스러우며 생기 있는 국민성은 인도나 중국보다는 차라리 그리스에 더 가깝다.<sup>4)</sup>

미시마는 그리스 여행을 한 후에 복고주의 사상을 표출하려 하였고, 또 그리스·로마의 기독교 정신을 일본의 신도(神道)와 기독교 정신과의 신기독습합(神基督習合)으로 나타난 점을 미시마는 작품 속에 삽입하려 하였다.

고대에서 그리스와 일본에서 영혼 숭배 사상의 원시적 신앙이 양 국가에서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후 유럽국가에서는 기독교가 발달하게 되었고, 16세기경 일본에 전래된 것이다.

해부르적 크리스티교적 신앙은 신(神)의 요구와 의지와를 중심으로 한다. 이 실재자(實際者) 앞에 인간이 책임을 가지고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로 한다. 따라서 그 중심은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소크라테스적 지적(知的) 인간이 아니고 신(神)의 의지의 계시 앞에 자기를 자각적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파울로적인 신앙의 인간, 의지의 인간이 아니면 안된다. 파울로가 예리하게 통찰한 것처럼, …… 신(神)은 인간이성(人間理性)의 판단의 저편에 있는 실재자(實在者)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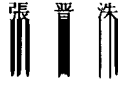
(「ヘブ라의キリスト教的な信仰は、神の要求と意志とを中心とする。この實在者の前に人間が責任をもって立ちうるか否かを問題とする。従ってその中心は人間の本性を認識し自覺的にそれを実現するソクラテス的知的人間ではなく、神の意志の啓示の前に自己を自覺的に服従させようとするパウロ的な信仰の人間、意志の人間でなければならない。パウロが鋭く洞察したように… 神は人間理性の判断の彼方にある實在者として示されるのである。)」<sup>5)</sup>

신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 줄 수 없지만 인간 이성에 맡기는 실재자로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미시마가 그리스 여행을 한 후에 이 『潮騒』 작품에 나타난 것처럼 주인공 신지와 하쓰에는 이성적이었고, 신의 요구와 의지를 중심으로 신의 의지의 계시 앞에 자각적으로 복종하는 신앙과 의지의 인간이었다. 그래서 복고주의 사상을 표출하려 하여 그리스·로마의 기독교 정신을 일본의 신도(神道)와 기독교 정신과의 신기독습합(神基督習合)을 나타내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의 인도주의자들, 이어지는 도덕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은 모두 이

4) 村岡田嗣(村奎泰譯), 日本神道社, 예문서원 1998, p.40

5) 椎名麟三・遠藤周作, 現代日本キリスト教文學全集18(原罪의問題), 教文館, 1974, p.60.



선에 따라서 그들의 추구를 행한 것이어서, 인간본성의 요구의 만족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자명한 목표이고, 여러가지 욕구를 가진 인간의 본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것, 그 존재 그 자체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욕구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 의해 그 창조자인 신에게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ルネサンスのユマニスト達、それに続くモラリスト達、更にラシオナリスト達は凡てこの線に沿ってかれらの追求を行つたのであって、人間本性の要求の満足こそはかれらにとって自明の目標であり、諸々の欲求をもつ人間の本性は人が生まれながら有するもの、その存在そのものから離すことの出来ないものであるから、かれらはこの欲求を徹底させることによって、その創造者なる神にまでも到ることが出来ると考えたのであった。」)<sup>6)</sup>

미시마는 역사적으로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 본성 요구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적 신신앙(神信仰)을 지적체계에 흡수하려고 하는 방향을 『潮騒』 속에 삼입하려고 하였다.

작품 『潮騒』에서 예를 들어보자.

야스오에게 쓸데없는 고자질을 자기가 해서 신지와 하쯔에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있었다. 죄를 지은 양심의 가책은 아직도 지요꼬를 괴롭히고 있었다. 신지와 하쯔에가 행복하게 되지 않고서는 자기는 섬에 돌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 어머니가 중개 역할을 해서 데루기찌를 설득시키고 두 사람을 결합시켜 준다면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安夫にいらぬ告げ口を自分がして、新治と初江を苦境に陥し入れてしまったことを、母親に告白した。罪の思ひはまだ千代子の心を苦しめてゐた。新治と初江が仕合せにならなければ、自分はおめおめと島へかへることができない。そこでもし母親が仲介の勢をとり、照吉を説得して二人を結ばせてやつてくれたならば、それを條件に島へかへつてもよい、といふのである。)(三島由紀夫 p.148)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신지와 하쯔에의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내용은 신지를 좋아하는 지요꼬의 질투로 말미암아 나쁜 소문이 만들어 졌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지요꼬 자신의 반성으로 말미암아 두 주인공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독교 사상의 양심을 가진 지요꼬가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잘못된 죄를 뉘우치고 깨달는 인간 본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그녀(어머니)가 적절한 처리를 취하지 않는 한 딸은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자살이라도 할지 모른다고 느꼈다.

(彼女が適切な処置をとらない限り、娘は良心の呵責にたへかねて、自殺でも

6) 椎名麟三·遠藤周作, 前掲書, p.58.

しはせぬかと思はれた。)(三島由紀夫p. 148)

지요코는 자기 양심의 가책의 죄를 받아 자살도 할지 모르는 그리스도 사상에 나타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하려는 신앙과를 종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적 인격적 신 중심적 신앙과를 종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서구 근세의 역사는 중세의 역사에서 연속적으로 발전한 것이지만, …… 사상사적 전개에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다. 중세의 사상을 요약하면, 그리스적 자연주의적 사상과 그리스도교적 인격적 신 중심적 신앙과를 종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그리스도교적 신신앙(神信仰)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적 사유(思惟)를 실존적으로 해석하고 신앙 속에 지식을 비판적으로 지양(止揚)하려고 하기보다는 역으로 신앙 내용을 지적 체계에 흡수하려고 하는 방향이 취해졌다.

(西歐近世の歴史は中世のそれから連続的に発展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思想史的展開の跡を辿ってみる。中世の思想は、一言に要約すれば、ギリシア的自然主義的思想と、キリスト教的人格の神中心的信仰とを総合しようとする努力を意味していた。そしてそれは大体において、キリスト教的の神信仰を根柢として、ギリシアの思惟を実存的に解釈し、信仰の中に知識を批判的に止揚しようとするよりは、むしろ逆に信仰内容を知的体系に吸収しようとする方向がとられた。)<sup>7)</sup>

서구 근세의 역사는 중세의 사상사적으로 전개해 보면 그리스의 자연주의 사상과 기독교적 신신앙을 근거로 하여 신앙 내용을 지적 체계로 흡수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미시마는 작품 『潮騒』 속에 중세의 기독교 신앙 내용이 지적적으로 예술이 담겨있는 기독교 사상을 표출해 내려고 한 것이 서구 유럽의 기독교 사상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2. 복고주의

미시마는 1951년(昭和26년) 때 호놀룰루를 거쳐 남미를 방문하고 그 다음해 3월은 유럽에, 4월은 영국을 거쳐 그리스(Greece), 이탈리아를 여행 중, 특히 그리스·로마 고대 문명의 폐허 속에서 아테네(Athene)에서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 및 제우스(Zeus) 신전의 원주(圓柱)들, 델피(Delphi)에서의 젊은이 상, 아폴로(Appollo) 신전, 로마에서의 비너스(Venus)상 등의 경험을 통해서 미시마는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sup>8)</sup>

그리스의 여행 중 지적 체계로 되어 있는 조각상이나 그림에서 표출되어 나타난

7) 椎名麟三・遠藤周作, 前掲書, p.59.

8) 沈日善, 「潮騒」 연구, 啓明大學校 碩士論文, 1987, p.13.



것처럼 외면성을 중요시하고 균형적인 아름다운 육체미와 힘을 바탕으로 하는 고전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예술품의 번성은 기독교의 문화이고 기독교는 많은 예술 작품을 창조시켰다.

복고주의는 과거의 체재나 전통으로 되돌아가려는 주의로 『潮騒』 작품에서 그의 복고적인 고전주의 사상을 알리고져 하였고, 미시마는 『潮騒』에서 고전주의 사상을 표출시켜 현대의 사상에 접목시켜 현대와 고대(古代)를 융화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래서 미시마는 이 작품 속에 복고주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야시로진자(八代神社)에는 예순여섯 면의 동경(銅鏡)보물이 있는가 하면, 또 팔세기 경의 포도경(葡萄鏡)도 있으며 일본에 열대 여섯 개밖에 없는 육조시대(六朝時代)의 거울 모조품도 있다. 거울 뒷면에 새겨진 사슴이나 다람쥐들은 아득한 옛날 페르샤 숲속으로부터 긴긴 육로와 바닷길을 거쳐, 거의 지구의 반이나 되는 여행길 끝에 이 섬에까지 와서는 고이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八代神社には六十六面の銅鏡の寶があつた。八世紀頃の葡萄鏡もあれば、日本に十五六面しかない六朝時代の鏡のコピーもあつた。鏡の裏面に彫られた鹿や栗鼠たちは、遠い昔、波斯の森のなかから、永い陸路や、八重の潮路をたどつて、世界の半ばを旅して來て、今この島に、住みならへてゐるのであつた。」(三島由紀夫全集,p.10)

동서양의 문화를 합일시키려는 내용이며, 섬세한 아름다운 고대 서양문화를 상기시켜 현대에서 숨쉬고 있는 고전 문화를 복고시키려 하는 작자의 표현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용예를 들어보면

그런 어찌됐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먼 나라의 왕자가 황금 배를 타고 이 섬에 표착해 왔다. 왕자는 섬 처녀와 결혼하여 살다가 죽은 후 이곳에 파묻힌 것이었다.

(「とまれ古い昔にどこかの謡かな国の王子が、黄金の船に乗つてこの島に流れついた。王子は島の娘を娶り、死んだのちは陵に埋められたのである」(三島由紀夫全集, p.108.)

또 다른 용예를 들어 보면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고송사이에 조그마한 도리이(鳥居) 사당이 있었다. <데끼왕자>의 전설은 모호했다. 데끼라는 그 기묘한 이름마저 뜻이 분명치 않았다. 육십세 이상의 노인부부에 의해 음력 정월이면 행해지는 옛날 식 제사에는, 이상한 상자를 잠시 열어 그 속에 들어 있는 홀(笏)같은 것을 잠깐 보여 주었는데, 그 비밀의 보물이 왕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頂きの七本の古松のあひだに、小さな鳥居と祠があつた。デキ王子の傳説は模倣としてゐた。デキといふその奇妙な御名さへ何語とも知れなかつた。六十歳以上の老人夫婦に

よって舊正月に行なはれる古式の祭事には、ふしぎな箱をちらとあけて、中なる笏のやうなものを窺はせたが、その秘密の寶が王子とどういふ關はりがあるのかわからなかつた。(三島由紀夫全集, p.108..)

또 다른 용예를 들어보면

하쓰에(初江)는 길몽을 꾸었다는 것이다. 신의 고지로 신지는 데끼왕자의 변신 이란게 알려져 축복 속에 하쓰에(初江)와 결혼하여 옥동자를 낳았다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初江は吉夢を見たのであつた。神のお告げで、新治はテキ王子の身代りであることがわかり、めでたく初江と結婚して、珠のやうな子供が生れるといふ夢を見たのである。)(三島由紀夫全集p.109)

즉, 현대와 고대를 융화시키려는 방법으로 작자 미시마는 꿈을 통하여 실현시키고려고 하였다. 신지(新治)가 데끼왕자로 변신된 고전주의와 하쓰에(初江)의 현대사상을 합일(合一)해서 잉태한 융합된 사상을 만드려는 그의 꿈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작자 미시마는 옛날 페르샤로부터 온 팔 세기경의 동경(銅鏡)에 새겨진 사슴이나 다람쥐같이 섬세하게 만든 조각품과 같은 보물과 왕자이면서도 섬 처녀와 결혼하여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게 일생을 행복하게 지낸 데끼왕자의 이야기를 꾸며서 그리스의 융성하였던 문화 및 인간본성의 욕구와 만족을 나타내려 하였다. 이 내용은 그리스의 문화가 발달되었던 고대사상과 현대사상을 융화시키고, 고전주의(古典主義)사상을 표출하여 이 작품을 통하여 복고풍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점을 엿볼 수 있다.

### 3. 선악 사상

#### 1) 원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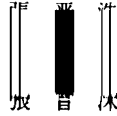
작자 미시마는 복고적인 고전주의를 표출시켜 그리스·로마의 기독교 사상을 이 작품 속에 접합시키려 하였고 기독교의 원죄는 욕심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원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파스칼에 의하면 심정(心情)은 사랑(愛)인지 욕심(慾心)인지의 그 어느 쪽에 지배되고 있고, 사랑은 자기를 미워하고 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욕심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심정(心情)은 본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원죄가 발견된다고 생각했다.

(パスカルによれば、心情は愛か慾かの何れかに支配されてあり、愛は自己を憎んで神を愛することであり、慾はその逆であると考えた。そして人間の心情は





本来慾に捕われているものであり、そこに原罪が見出されると考えた。)<sup>9)</sup>

#### 이 작품 속에서 원죄인 욕심에 대한 예를 들면

참다 못해 호통을 친 수부장에게 야스오는 매우 온당치 못한 대꾸를 했다.  
「어차피 난 섬에 돌아가면 데루 영감의 사위야. 그렇게 되면 이 배는 내 소유가 된단 말이야!」

(業をにやして叱りつけた水夫長に、安夫ははなはだ穩當でない返事をした。  
「どうせおれは、島へかへつたら照おやちの婿になるでなア。そしたら、この船はおれのもんや」)(三島由紀夫全集, p.136)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신지와 삼각 관계에 있는 인물인 야스오는 하쓰에(初江)와 결혼하여 하쓰에 집의 모든 재산을 착복하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가지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인간의 원죄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악의 사상에 빠져있는 흉한 인물로 등장한다. 이 작품 속의 내용은 수부장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되어 여주인공 하쓰에와 결혼하여 이 배가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점을 알려서 자기가 괴롭힘 당함을 면제받고 사악한 욕심만을 채우려 한다. 실제로는 악한 인물인 야스오는 하쓰에(初江)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고, 자기의 나쁜 마음만 드러내는 악의 근원을 만들고 있다.

페라기우스는 스토아적 풍격을 가진 수도자(修道者)였지만 그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는 보편적인 도덕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신의 요구를 생각하려고 했다. 이것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비로써 신의 율법을 완수할 수 있고 이 은총의 작용은 절대적이어서, 그것을 소홀히 하는 인간은 신에 대해서 죄악(罪惡)의 덩어리에 불과하고, 또 은총은 사람이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神)이 예정한 사람만이 이것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했다. 이 원죄(原罪), 그 유전설, 예정설은 페라기우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리(背理)의 극치이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었다.

(ペラギウスはストア的風格を有する修道者であったが、かれは人間が自然的に有する普遍的な道德意識を基準として神の要求を考えようとした。かれは人間は自己の良心に忠実に従い努力すれば神の欲する完全な善に到りうるとし、神はそれ以外を要求しえないと考えた。かかる考え方は信仰の必然性を破壊するものであった。それに対してアウグステイヌスは人間は神の恩寵によってはじめて神の律法を全うすることが出来、この恩寵の働きは絶対的であって、それを欠く人間は神に対して罪惡の塊にすぎず、人の中には根柢から罪惡が支配し、更にそれは生殖によって遺伝し、また恩寵は人が自由に求めうるものではなく、神の予定した人だけがこれを授かると考えた。この原罪、その遺伝説、予定説は神ペラギウスからみれば背理の極であり、人間の道徳的責任を崩壊させる危険な考え方であった。)<sup>10)</sup>

9) 椎名麟三・遠藤周作, 前掲書, p.73.

10) 椎名麟三・遠藤周作, 前掲書, p.62



인간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신의 율법을 완수할 수 있고, 이 은총을 소홀히 하면 죄악이 되고, 신이 예정된 사람만 이 은총을 준다는 신이 절대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潮騒』 작품 속에서 예를 들면

신지는 신이 자기의 청원을 모두 이루어 주었다고 마음 속으로 감사했으며 행복함을 느꼈다. 두사람은 오래도록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한번도 신들을 의심해 보지 않은 거기에 신들의 가호를 느끼었다.

(神々はおねがひしたことを悉く叶へて下さつた、と若者はまた心に幸福を呼びかへした。二人は永く祈つた。そして一度も神々を疑はなかつたことに、神々の加護を感自他。)(三島由紀夫全集. p.156)

결국 하나의 도덕 안에서 그들은 자유이며, 또한 신의 가호는 한 번도 그들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結局一つの道徳の中でかれらは自由であり、神々の加護は一度でもかれらの身を離れたためしはなかつたことを。)(三島由紀夫全集. p.160)

앞의 복고주의 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대사상과 현대사상을 융화시키고, 고전주의(古典主義) 사상을 표출하여 이 작품을 통하여 복고풍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 결과 이 항에서 취급한 그리스·로마의 복고적인 고전주의의 기독교사상을 이 작품 속에 접합시키려 한 것이다.

그래서 작품 『潮騒』 속의 네거티브적인 인물 야스오의 욕심을 표출하여 인간의 원죄가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기독교 원죄의 선악사상을 나타내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 2) 선과 악

선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모든 것, 그 육체적, 정신적 나아가서 사회적인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을 향한 욕구와 선의 획득을 저해하는 일체가 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예를 들면

인생에 사실상 惡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 아무도 의의가 없을 것이다. 악은 선에 대립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들의 견해가 선에 의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널리 선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을 향한 욕구와 선의 획득을 저해하는 일체(一切)가 악(惡)이다. 요약하면,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보다 영속적인, 보다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라는 것이다. 중세의 사람들은 크리스티교 내부에 있어서 이 문제를 추구하고 내세(來世)에 있어서의 진정한 선(善),

지복(至福)의 획득에 고심했다.

(人生に事実上、悪の存在することは恐らく何人も異論のないところであろう。……悪は善に対立する概念であり、従って悪を正しく理解するにはそれらの見解が善によって何を意味しているかを知らなければならぬ。広く善とは、いうまでもなく、人間にとって善きもの好ましいもの凡てを意味する。そしてそれは人間の欲求を充足する凡て、その肉体的、精神的、更に社会的な凡ての欲求を充しうるものを意味する。この善への欲求と善の獲得とを沮害する一切が悪である。従って欲求そのものも、それがあつたために反って苦惱が生ずる場合には、それは悪であると考えられる。……要約すると問題は人間にとってより永続的なまたより多くの人の与りうる善を獲得するにはいかにすべきかというに尽きる。中世の人々はキリスト教の内部においてこの問題を追求し、来世における眞の善、至福の獲得に労苦した。)<sup>11)</sup>

또한, 선악과 길흉 및 죄악 등의 관념과 연관시켜 보면 신은 생성신이며 선이고 길(吉)이었다. 이를 저해하는 존재로 악신의 활동이 거론되었다.

결국 고대 일본인들은 선은 길한 것이고, 악은 흉한 것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해 선은 아름답고 좋고 다행스럽고 귀한 것으로, 악은 선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겼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귀한 사람이며, 좋은 일은 선한 일이자 길한 일이다 라고 말하였다.<sup>12)</sup>

이 작품 속에서 증오감으로부터 나타나는 악에 대해서 말하면 야스오는 하쓰에의 물길은 당변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적혀 있는 하쓰에의 당변을 확인하고 있을 무렵 야스오는 목욕을 한 후 목욕탕 앞에서 있는 신지를 보았다. 신지와 하쓰에가 야스오 자신을 빼들리고 자기를 떨시킨 것에 화가 나서 증오감으로 가득차고, 밤에는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이다.

『潮騒』 작품 속에서 예를 들면

그(야스오)는 목욕탕 앞에서 있는 신지(新治)를 보았다. 증오감으로 가득차서 평소의 관록도 잊어 버렸다.

(彼は男湯の入口に立つてゐる新治を見た。憎しみでいつぱいになり、日頃の貫禄もわすれてしまった。) (三島由紀夫全集, p.79)

신지(新治)에의 증오와 자기를 빼들린 신지에 대한 경쟁심이 그를 잠들지 않게 해 준 것이다.

(新治を憎むことと、自分を出し抜いた新治への競争心とが、十分彼を眠らさないでおいしてくれたのである。) (三島由紀夫全集, p.79)

인간이 증오감으로 가득차게 되면 악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몰락하게 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즉, 인간의 심정(心情)은 본래 욕심에 사로잡

11) 椎名麟三・遠藤周作, 前掲書, p. 57.

12) 村岡田嗣(朴奎泰譯), 前掲書, p.31.

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원죄가 발견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시마는 이 작품에서 선과 악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등대에서는 최상의 선물이 손님이었다. 마을 멀리 떨어진 어느 등대나 일부러 멀리 먼 길을 찾아오는 손님은 악의를 가지고 찾아 올 리가 없었고 또 격의 없이 진객 대접을 받고 보면 누구의 마음이나 다 악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 그가 가끔 말하고 있는 바와같이 「악의는 선의만큼 먼데까지 미치지 못한다.」

(燈臺では、最上の御ち走がお客様であった。人里離れたこの燈臺でも、はるばる彼のところまで訪ねて来るお客は、悪意をひそめて訪ねて来るはずはなかつたし、また隔意なく珍客の扱ひをされてみると、だれの心からも悪意は消されるのであつた。事實彼がしばしば云うやうに、「悪意は善意ほど遠路に行く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る。) (三島由紀夫全集, p.45)

작자 미시마는 이 작품 속에서 악의 원죄인 야스오(安夫)의 증오와 욕심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 악의 원죄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악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야스오(安夫)는 여러면에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신지와 하쓰에가 행한 선한 행동은 신의 깊은 은총을 받고, 신지와 하쓰에가 결혼하게 된다는 기독교의 선악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 Ⅲ. 결 론

작자 미시마는 카미지마(神島)란 실제의 섬을 답사하고 그 섬을 배경으로 『潮騒』 작품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 이 작품 속에서 카미지마를 우다지마로 변경하였고, 우다지마(歌島)란 섬은 별로 크지 않고 조그만 섬이다. 그 섬에서 자라난 주인공 신지(新治)와 야스오(安夫)는 서로 친구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섬에서 가장 부자인 데루기찌(照吉) 영감의 딸 하쓰에(初江)와의 삼각관계를 갖는다. 그들 사이에서 사랑을 위한 여러 사건이 벌어지지만 주인공 신지는 많은 고비를 넘긴 후 고난 끝에 여주인공 하쓰에와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에서 일본의 신도 사상과 유럽에서 일어난 복고주의 사상을 매개로 하여 그리스 기독교의 원죄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 기독교의 원죄사상은 인간의 심정(心情)은 본래 욕심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원죄가 발견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리스 기독교에서 나타난 원죄는 선악사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야스오는 신지가 가미가제호를 타고 선원 실습을 하는 도중 불성실한 야스오에게 수부장은 야단을 쳤는데, 그때 야스오는 참다못해 호통을 친 수부장에게 그는 앞으로 선주의 딸인 하쓰에와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배는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여 자기의 추악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수부

장을 화나게 만들었다. 야스오는 신지와 하즈에에 대한 증오로 가득찼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다. 하즈에 아버지인 데루기찌 영감은 야스오를 사위감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데루기찌 영감에게도 야스오가 무능력하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하즈에와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유능하고 선한 행동을 한 신지는 하즈에와 신의 은총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기독교의 선악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작자가 일본의 기독교의 원죄로 나타난 선악사상을 독자에게 표출시키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潮騒』 작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 욕심은 원죄를 낳고 선과 악은 원죄에서 나온다는 선악 사상을 기독교 사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결론으로 맺고자 한다.

## 參考文獻

- 村岡田嗣(朴奎泰訳), 日本神道社, 예문서원, 1998.  
 遠藤周作, 『私にとって神とは』, 光文社, 1983.  
 林鍾碩, 엔도슈사쿠의 『침묵』에 있어서의 기독교, 韓國日本学会, 2002.  
 椎名麟三・遠藤周作, 現代日本キリスト教 文学全集18 (原罪의問題), 教文館, 1974.  
 沈日善, 『潮騒』研究, 啓明大学校 碩士論文, 1987.  
 小久保実, 遠藤周作の世界, 和泉書院, 1983.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編,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三島由紀夫』, 有精堂, 1975.  
 三好行雄編, 『日本近代文学研究必攜』, 学灯社, 1980.  
 武田友寿, 『遠藤周作の文学』, 聖文社, 1975.  
 紫田勝二, 三島由紀夫 『潮騒』論(神としての物語), 相愛大学研究論集編集委員会, 1995.  
 롱고스(松平千秋訳), 『ダフニスとクロエ』, 岩波書店, 1987.

■要旨

『潮騒』의 사상 소고(小考)

-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

張晋洙

작품의 『潮騒』 중 일본의 신도思想とヨーロッパで起こる復古主義思想を媒介として, 그리스아基督教의 原罪를 表わしている. この作品はダフニスとクロエ-의 作品을 模写であるものですが, 그리스아基督教의 原罪에 因る 善惡思想을 表わそうとした.

基督教의 原罪이라는 것은 人間의 心情은 本来, 慾心에 捕り込まれているものであり,そこに 原罪가 発見されると 思われる. 作品 『潮騒』 中 安夫는 ネガティブ的 人物で 慾心가 深くて, 憎惡의 いっぱいになった 惡의 心을 持っている 人物で, 女主人公의 初江に 好感을 持てなかつた. しかし, 主人公의 新治는 能力があるし, 善な 行動을 していたので 神의 恩寵で, 初江と 結婚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 善惡思想을 表わしている.

筆者는 慾心は 原罪를 産んで, 善と 惡は 原罪から 出で来るという この 点을 『潮騒』 作品で 表れして 基督教의 思想として 看做しようとしたという 結論을 尽したい.



